

# 목포대·순천대, 국립의대 설립 통합 논의 연장

### 통합 취지 공감...용역기관 공모기준 마련 위해 설명회·공청회 '공모 마감' 11월 20일 이전 합의하면 통합의대 방식 적용 가능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 및 대학병원 신설 지역을 정부에 추천'하기 위한 용역기관의 제시 기한인 28일까지 통합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이들 대학은 전남도 용역사의 공모 절차와는 별도로 대학 통합의 취지에 상호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오는 11월 20일 이전에 통합에 합의할 경우 통합 의대

방식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양 대학은 대학 통합에 기반한 의과 대학 신설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 실무진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했으며, 양 대학의 입장 차도 컸다.

양 대학 총장은 지난 1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영록 전남지사, 김문수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오찬 간담회에서 대학 통합을 통해 국립의대 문제를 이어 나가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세부 절차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 안팎에서는 앞으로 통합 의대 개교를 위해서는 양 대학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예비인증 평가 신청 대학, 통합 의대 설립 장소 등과 관련한 논의와 그에 따른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용역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이하 용역사)은 28일 두 대학의 통합 합

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라 공모 평가기준 마련을 위해 대학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 동부권은 29일 10시 30분 동부지역본부 이순신 강당에서, 서부권은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목포대 70주년 기념관에서 갖는다. 앞서, 용역사는 양 대학에서 10월 28일까지 통합 합의를 제출하면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설립 방식을 검토하고,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공모 추천' 방식으로 진행하는 투트랙 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 공모 절차는 28일 대학설명회 및 공청회를 시작으로 31일 제안서 공모 설명회, 11월 1~20일 공모,

11월 21~23일 평가를 거쳐 최종 추천 대학을 선정하고 11월 25일에 정부에 제출한다. 용역사는 또 공모가 마감되는 11월 20일 전까지 양 대학에서 통합에 합의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통합 합의서'를 제출하면 공모를 잠시 보류하고 '통합의대'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역기관 관계자는 "오는 11월 25일까지 정부에 반드시 추천해야하는 촉박한 일정으로 통합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통합의대와 '공모'를 염두에 두고 최선의 설립 방식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박창환 전남도 정무부지사 등 17개 사·도 관계자들이 28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광주시는 공모사업에 미래차와 가전, 전남도는 석유화학·철강·조선 분야가 선정됐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전남도,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추진

### 광주시, 산자부 공모 사업 미래차·가전 선정돼 국비 199억 전남도,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3개 분야 국비 225억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공모사업에 광주시는 미래차와 가전이, 전남도는 석유화학·철강·조선 분야가 선정됐다. 산업부는 28일 AI 기술을 접목한 자율 제조 시스템을 개발해 생산 고도화를 구현하고자 기계·조선·반도체·자동차·이차전지 등 우리나라 12개 주력 사업 분야를 대상으로 공모를 시행해 총 25개 사업을 선정·발표했다. 광주시는 미래차 분야의 전장부품 도장 공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율 제조시스템 기술과 가전 분야의 가전공장 AI 기반 자율 제조 운영 기술 개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88억원을 확보했다. 지역 선도 기업(영커기업)인 한국알프스와 한국자동차연구원·광주산학융합원 등이 2027년까지 국비 35억원 등 총사업비 57억원을 투입해 전장부품 도장 공정 자율 생산 기술 개발과 실증에 나선다.

제이디텍·아우시스템·한국전자기술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생활가전 ODM(주문자 위탁 생산)·OEM(제조자 설계 개발 생산) 전문 업체인 DH 글로벌의 주관하는 국비 76억원(국비 53억원 포함) 규모의 지능형 제조 운영 시스템 개발에 참여한다. 이들 기관은 가전제품 생산성 향상을 2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날 석유화학·철강·조선 등 3개 분야가 선정돼 22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석유화학 산업 분야에는 국비 85억 원을 투입,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시아 최초 정유·석유화학 분야 인공지능 자율제조 등대공장 선정은 목표로 추진한다. 철강 산업으로는 국비 100억 원을 투입, 대구경 강관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고 핵심 공정의 지능화 및

무인화를 추진한다. 대구경 강관은 에너지 플랜트 및 친환경 에너지 수송에 사용되는 글로벌 수요가 높은 제품이다. 조선 산업엔 국비 40억 원을 투입, 고난도의 선박 국블록 생산공정의 용접 작업 최적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해당 인공지능 기술 개발·실증을 넘어 지역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2025년에도 추가로 다른 제조업 분야 인공지능 자율제조 관련 과제를 발굴해 전남도 주력산업과 미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는 전남도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조선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전남의 제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맛과 멋' 매력발광... 'G-페스타 광주'에 빠지다

### 콘텐츠 중심 알찬 축제로 가을 이벤트 통합브랜드 체류형 관광환경 기대 높여

빛고를 가을을 감동과 재미, 맛의 즐거움으로 가득 채운 '2024 G-페스타 광주'가 한달간의 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17개 축제와 행사,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를 하나로 묶은 G-페스타 광주가 지난 달 25일부터 지난 26일까지 개최했다. 'G-페스타 광주'는 예술을 주제로 한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 미식을 주제로 한 시즌2 '테이스티(Tasty) 광주'로 구분해 고유 색을 입혔고 대규모 전시행사와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거뒀다. 특히 'G-페스타 광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 축제 통합브랜드 우수사례로 꼽으면서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광주만의 예술로 재미와 감동의 즐거움을 선사한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는 9월 25일부터 10월 13일까지 19일 간 11개의 행사로 구성됐다. 먼저 세계 3대 비엔날레로 올해 30주년을 맞은 '제15회 광주비엔날레'를 찾은 방문객이 G-페스타 광주 기간동안 예술과 맛을 주제로 한 행사를

둘러보며 오랫동안 광주의 매력을 한껏 즐기는 체류형 관광환경이 조성됐다. '빛고을 캠퍼스 이스포츠대회'에서는 관람객이 젊은 층이라는 점을 겨냥해 G-페스타 유료행사인 '렛츠플로피'와 '비어페스트' 등의 활인쿠폰을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다. 광주 최대 맥주축제인 '비어페스트'는 '광주사운드파크 페스티벌'과 무대를 공유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광주 대표 문화콘텐츠 전시회인 '광주에이스 페어'에는 3만6000여명의 관람객과 3억6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냈다. '충장발광(光)'을 주제로 금남로와 충장로 일원에서 열린 '광주 추억의 충장축제'에선 광주버스크링드럼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문화공간이 잇따라 열려 광주를 대표하는 도시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항의 도시 광주의 맛으로 즐거움을 선사한 시즌2 '테이스티 광주'는 10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간 맛을 주제로 6개의 행사가 열렸다.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 최대 규모의 식품산업 전시회인 '광주식품대전'에는 300개사가 참가해 450개 부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식품 관련 제품 전시와 비즈니스 상담이 이뤄졌다. 전년대비 2배 이상의 상담건수로 104억원의 상담액과 32억원의 계약을 달성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대구 청년 40여명, 광주서 '달빛교류'

광주·대구 청년 40여명이 광주에서 청년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문화·예술 체험을 했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청년위원회와 대구청년정책네트워크 주관으로 지난 27일 광주에서 '청년 달빛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청년참여기구 간 '광주·대구 달빛동맹'의 하나로, 두 지역의 청년위원들이 2016년부터 9년째 교류를 통해 우정을 나누고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청년교류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두 지역에서 40여명의 청년위원들이 참여했다. 광주청년위원회는 19~39세 청년 50명으로 구

성된 광주시 청년참여기구로, 지역청년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청년정책 연구활동을 통해 광주시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청년위원회는 대구청년들과 함께 광주영상문화관광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방문하고, 문화·예술 도시 광주를 소개했다. 이들은 또 광주독립영화관(GIFT)에서 광주시와 대구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발표와 자유토론을 통해 서로 고민을 나누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